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 500	7,730.99pt	0.72%
DOW	53,569.44pt	0.20%
NASDAQ	26,541.35pt	1.57%
STOXX 600	651.85pt	-0.69%
美 국채 10년물	4.68%	2.97bp
美 국채 2년물	4.23%	2.16bp
달러 인덱스	99.11pt	-0.05%
국제유가 (WTI)	83.53\$	1.5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엔비디아가 이끈 뉴욕 증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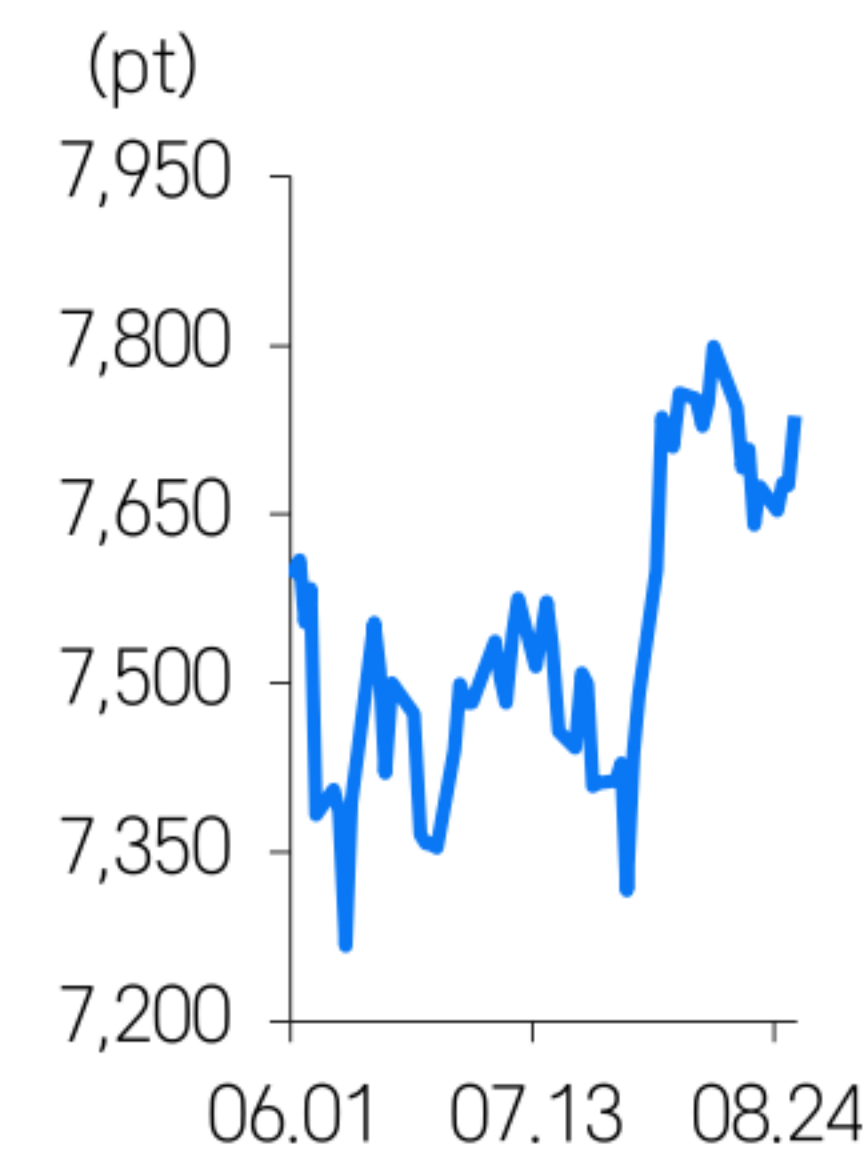
엔비디아, 예상치 큰 폭 웃도는 미래 매출 성장세 제시하며 8.7% 상승
S&P500 내 11개 섹터 중 IT(+3.4%) 제외한 모든 섹터 약세로 마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호실적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르며 뉴욕 증시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전일 장 종료 후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함께 내년 회계연도 매출 성장치를 70%(vs.컨센서스 45%)로 제시한 동사는 이날 8.74%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FO는 공급 측 제약이 없었다면 내년도 매출 성장은 100%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자신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약 4,42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원화 환산 기준으로 61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이날 엔비디아의 선전과 달리 여타 업종의 상승 탄력은 미미했습니다. 실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섹터 홀로 3.40% 올랐고, 나머지 모든 분야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S&P500 편입 종목 중 오름세를 보인 곳은 150여 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날까지 내림세를 지속하던 유가가 다시 반등에 나서며 시장 금리를 끌어올린 점이 온기의 확산을 제한한 듯합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란과 체결한 MOU 조건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중재국들의 협상 노력을 난항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WTI 유가는 전일 대비 1.58% 뚝 83.53 달러로 마감했고, 미 국채 10년물은 3bp가량 상승한 4.68%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역시 2bp 오른 4.23%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당일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표명한 점 또한 금리의 오름폭을 키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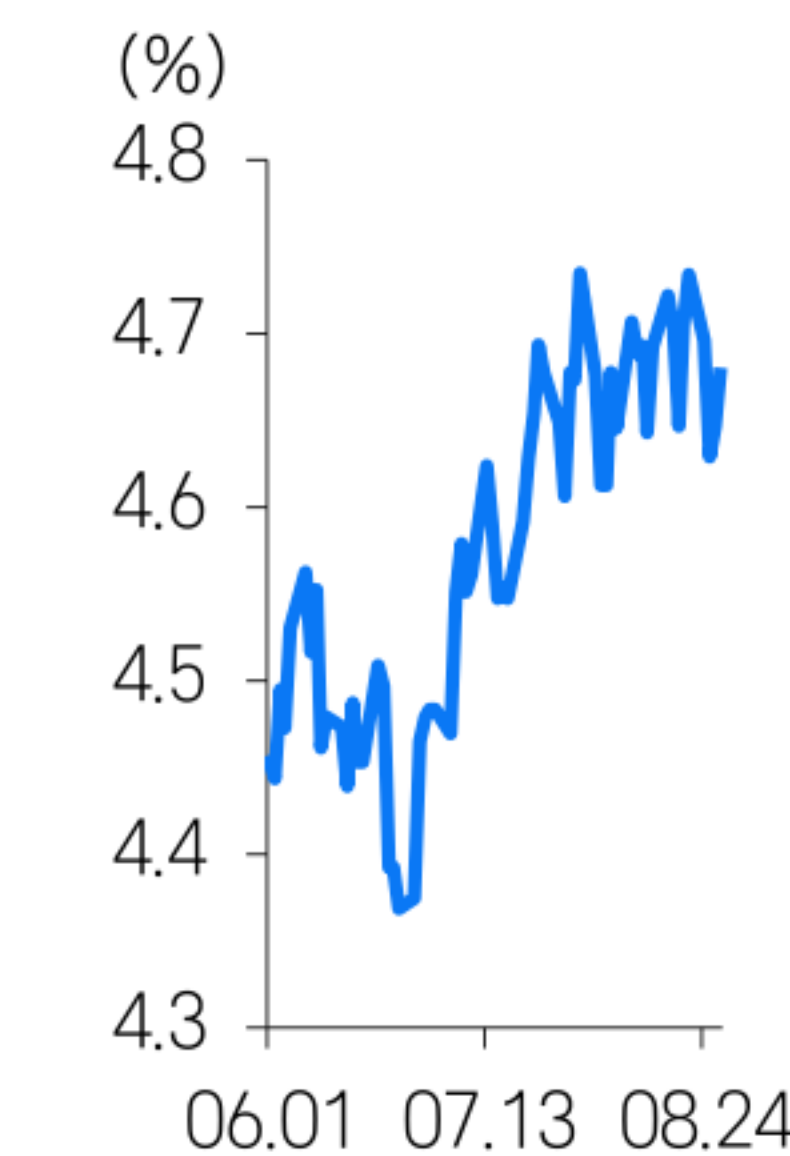
이날 S&P500은 0.72%, DOW는 0.20% 올랐고 NASDAQ은 1.57%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DRAMETF가 1% 미만의 오름세에 그치는 등 여타 반도체 업종의 반등 탄력은 다소 미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고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CRM S/W 전문업체 세일즈포스는 이날 22.58% 급등했고, 보안 솔루션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20.5% 뛰었습니다. 두 기업의 선전 덕분에 여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업체 역시 동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P500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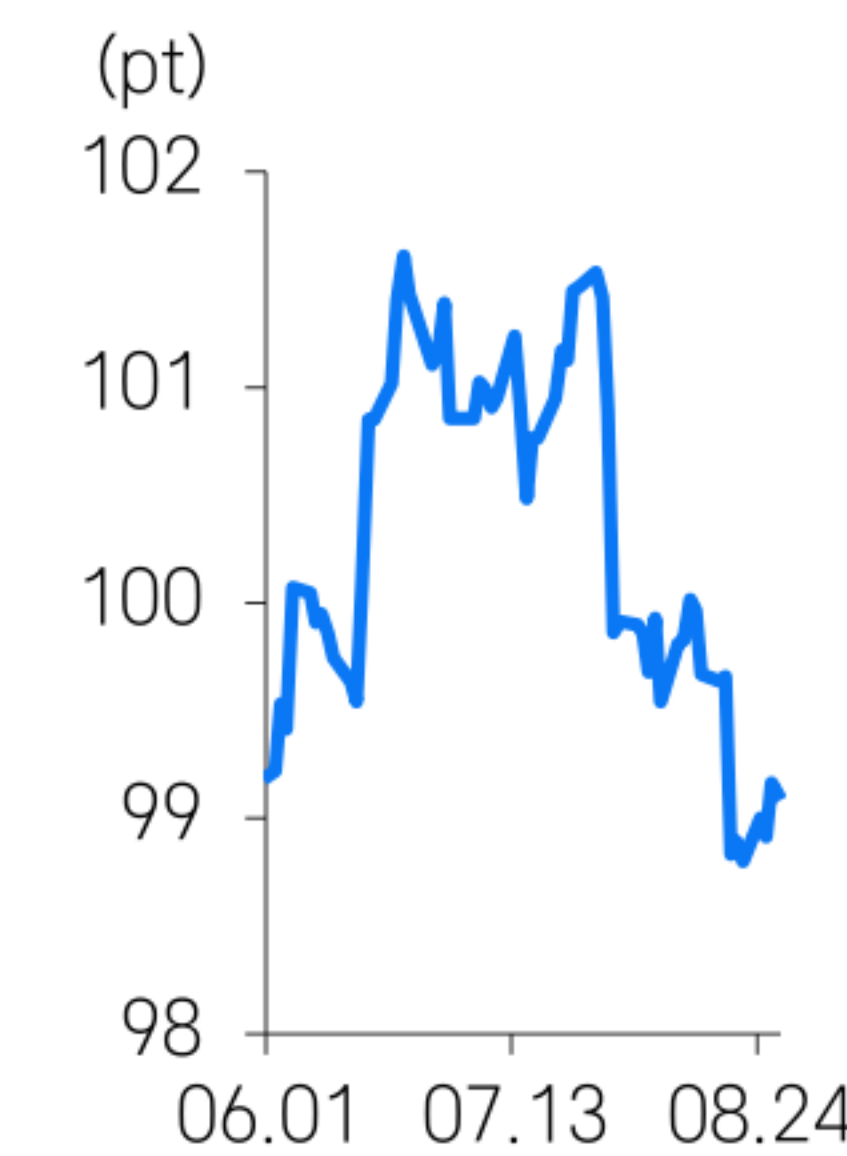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美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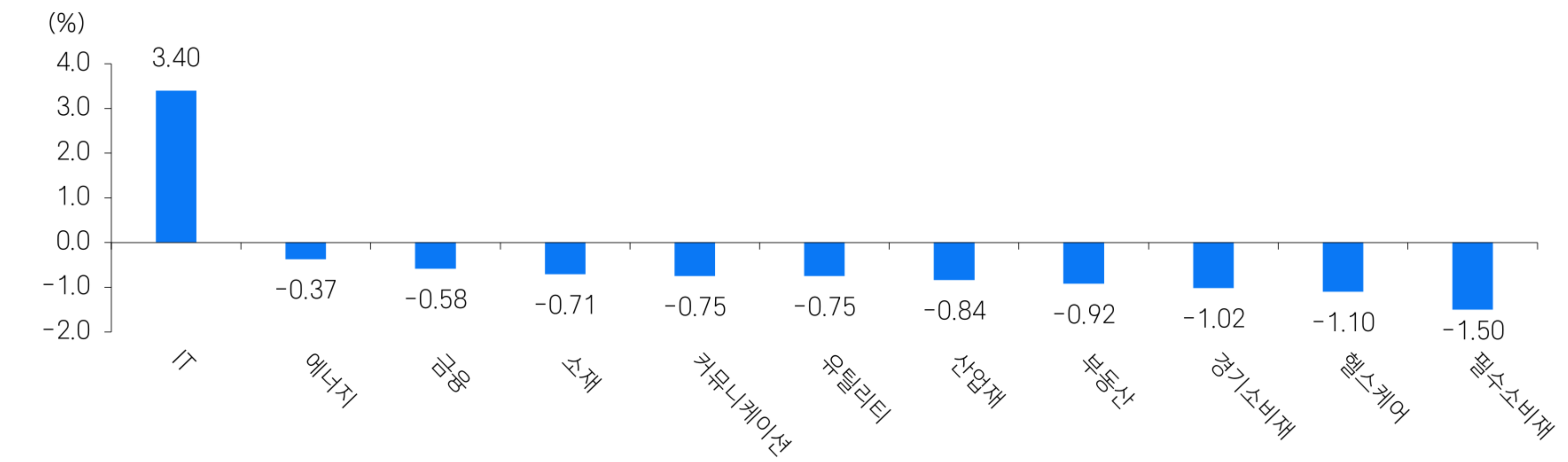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세일즈포스	22.6	정보기술
2	서비스나우	10.0	정보기술
3	엔비디아	8.7	정보기술
4	어도비	5.7	정보기술
5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4.7	정보기술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제너럴 에어로스페이스	-3.3	산업재
2	부킹 홀딩스	-3.0	자유소비재
3	컴캐스트	-2.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	맥도날드	-2.6	자유소비재
5	월트디즈니	-2.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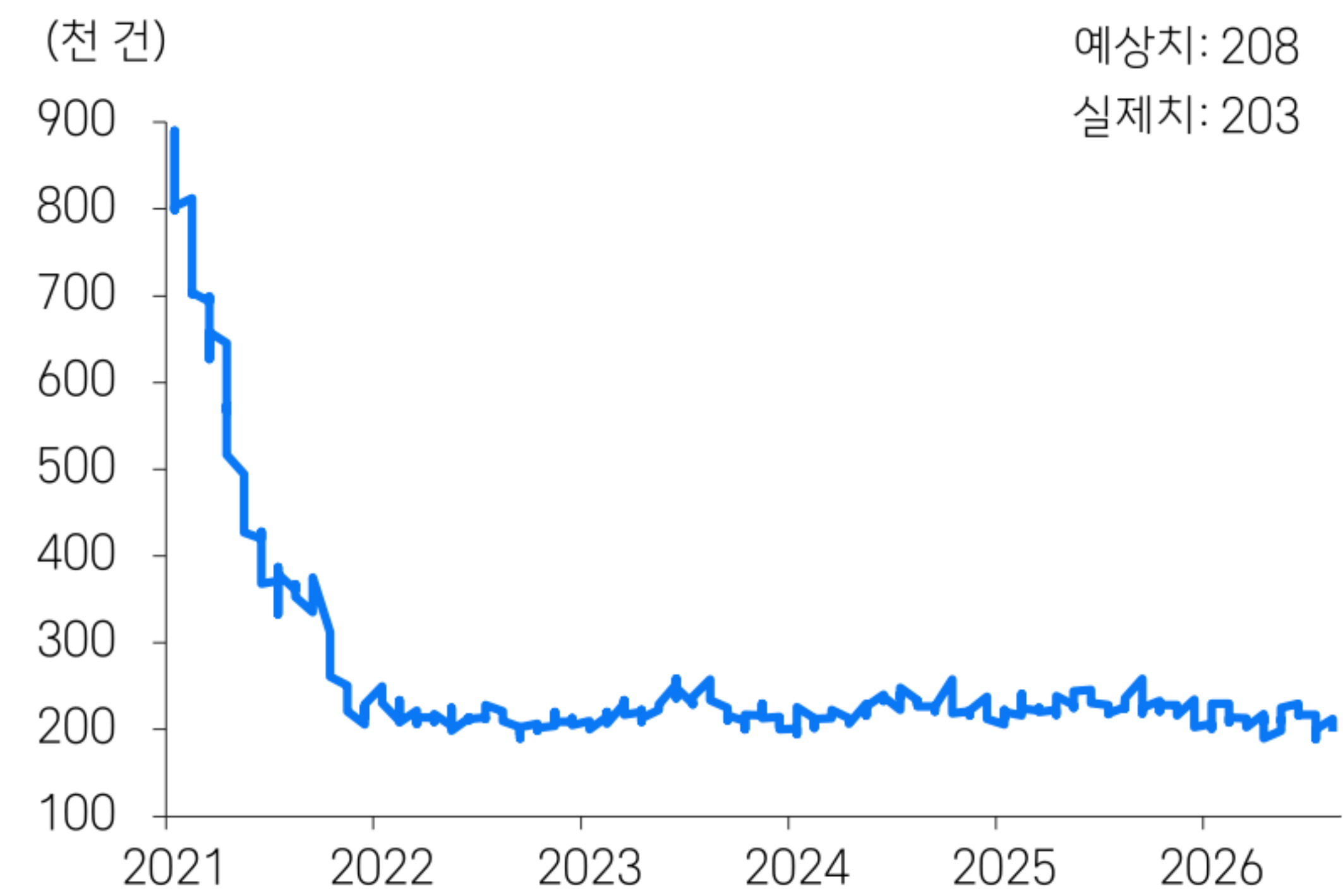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1.65	2.23	12.9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3	0.70	2.83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0.32	-0.07	4.50
MSCI EM ETF	0.66	1.49	6.27
NDF 원화 환율	0.01	0.31	5.26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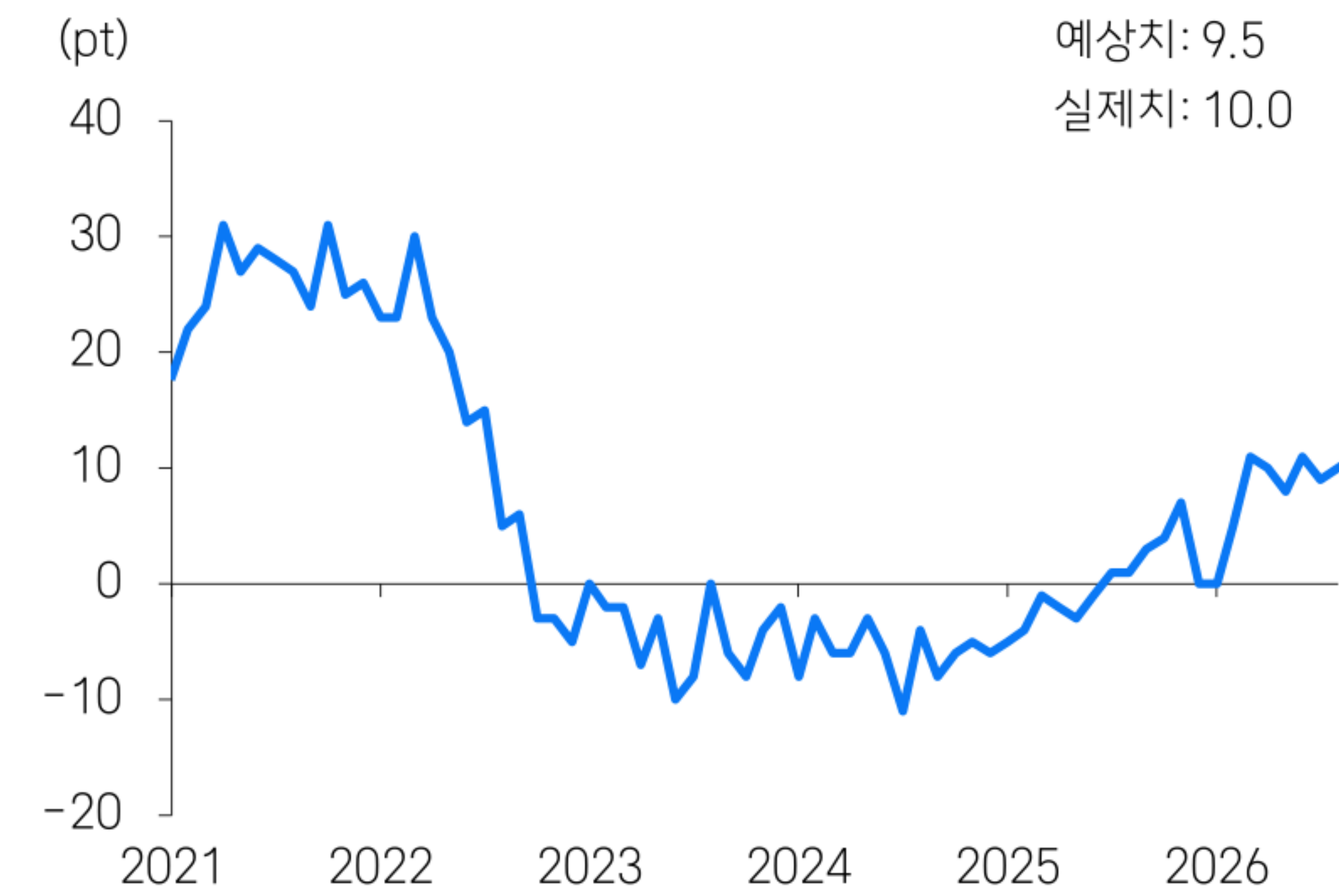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8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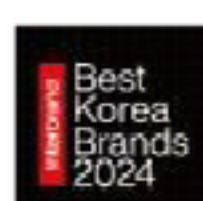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